

## 광주·전남 대학들 “취업률을 높여라”

### 학원 수강료 절반 대주고 인턴 학생에겐 급여 보조 공부방 운영·취업캠프도

광주·전남지역 주요 대학들이 재학생 및 졸업생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갖은 묘안을 마련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학생들에게 학원 수강료 절반을 지원하는가 하면 여름방학 중 취업 캠프를 열어 심화교육을 실시하는 등 방식도 다양하다.

▷학원비 지원= 전남대는 지난달 15일까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250명(광주 캠퍼스 200명, 여수 캠퍼스 50명)을 선발, 학원 수강료의 절반을 지원하고 있다.

▷인턴 지원= 전남대는 지정된 학원이나 온라인 업체 등에서 총 수업일의 75% 이상을 수강하면 1인당 최대 20만원까지 보전해 주고 있다.

▷취업 준비 캠프 운영= 동신대는 재학생과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취업과 진로 준비를 위한 집중 심화학습 프로그램을 6, 7월 두달동안 시행하고 있다. 지난달 25일부터 2박 3일간 학교 기숙사인 '미래학사'에서 합숙교육을 통한 취업캠프를 열어 면접가이드와 자기소개서 작성요령, CEO 특강 등도 실시했다.

90여㎡ 규모의 센터에는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비롯해 교육과정 및 임용고사 관련서적, 그리고 각종 시청각 자료들이 구비돼 있어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료를 열람하거나 대출할 수 있다. 또 인터넷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컴퓨터와 비디오 설비도 갖춰져 있다.

▷취업 준비 캠프 운영= 동신대는 재학생과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취업과 진로 준비를 위한 집중 심화학습 프로그램을 6, 7월 두달동안 시행하고 있다. 지난달 25일부터 2박 3일간 학교 기숙사인 '미래학사'에서 합숙교육을 통한 취업캠프를 열어 면접가이드와 자기소개서 작성요령, CEO 특강 등도 실시했다.

▷인턴 지원= 전남대는 지정된 학원이나 온라인 업체 등에서 총 수업일의 75% 이상을 수강하면 1인당 최대 20만원까지 보전해 주고 있다.

▷인턴 학생에겐 급여 지급 = 호남대는 오는 2학기부터 국내 기업체에서 인턴으로 현장 실습에 나서는 4학년 학생들에게 1시간 근무에 3천원씩을 지원할 계획이다.

▷학생들은 3학점(90시간) 당 27만원씩 최고 15학점(450시간)에 135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계절학기를 이용해 해외 기업에서 현장 실습을 하는 학생들에게는 100만원이 지원된다. 호남

조산대 취업지원본부도 오는 5일부터 27일까지 3~4학년 여학생을 대상으로 '여대생 진로설계와 취업'이라는 교양과목을 개설, 특화된 취업경력개발을 통한 '맞춤형 성공취업'을 돕는다.

/황태종기자 hwangtae@



1일 광주·전남 전역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나주시 대호동 현대아파트 앞 도로가 100mm에 가까운 장대비로 침수되면서 차량들이 거북이 운행을 하고 있다. 호우주의보는 이날 오후 5시를 기해 해제됐지만 광주·전남지역에는 2일 오후까지 강풍을 동반한 10~60mm의 비가 더 내릴 전망이다.

## “첨단·나주에 산업밸리 조성”

### 광주·전남 공동 대선공약 10대 요구 사업 문화수도·의료 단지·SOC 확충 등 제시

광주시와 전남도가 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 요구할 광주·전남 공동발전 위한 10대 공약 요구안을 잠정 확정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함께 공약 요구안을 만든 것은 시·도간 상생 발전과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관련기사 3면〉

광주시·전남도는 잠정 결정한 10대 공약안을 바탕으로 이달 하순 '4대 광주·전남 공동 프로젝트' 실현을 위한 10대 공동 공약 요구안을 최종 확정한다. 시·도는 이를 주요 정당과 대

선 후보들에게 전달해 대선 공약에 포함되도록 할 방침이다. 시·도가 공동으로 발결한 4대 프로젝트는 ▲공동산업밸리 조성(3개 세부공약) ▲건설·의료 허브단지 조성(3개 세부공약) ▲아시아 문화거점 조성(3개 세부공약) ▲공동 SOC확충 등이다.

시·도는 우선 광주의 첨단산업을 전남지역에 확장·접목시켜 공동발전의 궤를 같이 하고 나주공동혁신도시를 양측의 발전축으로 삼을 수 있도록 '광주·전남 공동산업밸리' 프로젝트를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할 계획이다.

공동산업밸리 프로젝트는 첨단산업 육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광주시의 오랜 숙원인 광주R&D(연구·개발)특구 지정과, 3개 세부공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광주~장성~나주를 첨단산업밸리로 묶어 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하는 방안과 광주와 나주 공동혁신도시 사이에 국가신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이 공동산업밸리 프로젝트에 포함되어 있다.

건강·의료 허브 단지 프로젝트는 광주·전남 접경지에 정부가 추진 중인 첨단의료 복합단지를 유치하는 한편, ▲고령친화특구 지정 ▲국립 노년종합연구소 설립 ▲웰빙건강클러스터 조성 등을 세부 내용으로 담고 있다.

아시아 문화거점 프로젝트는 광주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전남의 문화·관광 자원을 연계해 지역발전 파급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한 것으로 ▲문화·예술 종합 파크 조성 ▲영산강 생태·문화공동체 조성 ▲광주·전남 아시아 문화축전 개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광주·전남의 국내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공동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계획도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된다. SOC공약 요구안에는 ▲호남고속철도 노선의 무안국제공항 경유 ▲광주권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광주~완도 고속국도 노선연장 및 조기 완공 ▲광주~고흥 고속국도 건설 등이 담겨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비 60mm 더 온다

### 집중 폭우...도로 곳곳 침수 광주전남 주차장 잠정폐쇄

광주·전남지역에 이날 오후 5시를 기해 호우주의보(12시간의 강수량이 80mm 이상인 경우)가 발효된 가운데 오후 6시 현재 광주·전남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다. 〈표〉

광주에는 시간당 18.5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관산구 운남동 운남교 하부도로가 침수돼 오전 11시부터 3시간 가량 차량 운행이 금지됐다. 동구 학동 남광주4거리·남구 임암동 효천역·북구 문흥동 청소년수련관 인근 등 시내 도로 10여 곳도 일시적으로 침수됐다.

광주시는 1일 새벽부터 서구 양동 북개 하부 주차장을 잠정 폐쇄했다. 지리산의 경우 이날 새벽부터 입산이 전면 통제됐으며, 대피소에 있던 등반객 600여 명도 긴급 대피했다. 신안 대흑산도·홍도지역엔 강풍주의보(순간 풍속 20m 이상이 예상될 때)가 내려지면서 선박 210척이 긴급 대피했으며, 목표와 여수공항에 이·착륙 하려던 4편의 항공기가 결항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한미FTA 비준 난항 예고

### 협정문 공식 서명...美 민주 “이대론 지지 못해”

한미 양국이 지난달 3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합의문에 공식 서명했다. 〈관련기사 4면〉

김현중 통상교섭본부장과 수전 슈워트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현지시각)부터 미 의회 개원발달에서 한미 FTA 서명식을 갖고 작년 2월부터 17개월간 진행됐던 양국 정부간 협상을 마무리했

다.

FTA 합의문이 서명됨에 따라 양국은 FTA 발효를 위해 양국 의회에서 비준동의를 받기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하게 된다.

하지만 미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 하원 지도부가 29일 “현재 체결된 대로는 한미 FTA를 지지할 수 없다”며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등 양국 정치권

에서 한미 FTA 체결에 대한 반대의견도 제기되고 있어 최종 의회 비준동의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한국이 올 연말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되고, 미국은 내년 11월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는 등 의회 비준동의의 과정이 양국의 중대한 정치일정과 맞물려 있어 한미 FTA 비준동의의 문제가 정치 쟁점화되면서 찬반

양면이 격화되는 것은 물론 비준동의가 상당 정도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날 서명식에서 카를로스 구티에레스 미 상무장관은 “한미 FTA는 미국이 지난 15년간 체결한 무역협정 가운데 상업적으로 가장 의미 있는 협정”이라면서 “미 행정부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의회가 이번 한미 FTA로 인한 미국의 이득에 대해 확신도록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중 본부장도 “한미 FTA는 한미 양국의 희망을 상징한다”면서 “한미 FTA를 좌초시키면 더 안정된 미래가 열릴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일각의 한미 FTA 비판을 반박했다. 〈연합뉴스

CATS  
‘갯조’ 티켓 발매중!!  
2007.8.7-18 / 동주면 101번  
문의: (062)220-0340 / 1533-0765

유망직업 장학 57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www.nab.ac.kr  
전남과학대  
www.jnsc.ac.kr

호남지역 경제의 큰기회 - 한미자유무역협정

자유무역협정(FTA)이란...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은...

호남지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문의: (062)220-0340 / 1533-0765